



# 정교회주보

제2426호

2023.6.2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소피아 성당(사진)은 그리스 데살로니키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중에 하나다. 3세기에 최초로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성당은 7세기에 재건축되었다. 성당은 1917년 화재로 피해를 보았다. 내부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벽화가 특징이다. 뛰어난 비잔틴 건축과 예술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마태오 제3주일  
성 페브로니아 수녀순교자  
(제2조 • 조과 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로마 5,1~10 ..... (봉) 133
  - 복음경 : 마태오 6,22~33 ..... 109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아침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항상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느님을 잊고 살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깨어나는 것만으로 아침 기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하느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만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참된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면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애타는 갈망은 꺼져버릴 것입니다.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 내면의 심판자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내면의 소리로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라 양심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정죄합니다. 말하자면, 양심은 내면의 심판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양심도 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병든 양심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많은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서 온통 죄악된 것들과 안 좋은 것들만 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기에 깊은 슬픔과 우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하는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합니다. 마치 늘어나는 고무줄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은 또 지극히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용기있게 진리를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단단히 굳어있는 양심’입니다. 병든 양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렇게, 편협하고 굳어져 있으며 공감할 줄 모르는 차가운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을 행할 때 기뻐합니다. 심지어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실과 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든 양심들 외에 ‘건강한 양심’도 있습니다. 건강한 양심은 우리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로마 12,2 참조)를 생각하고 고민할 때,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 형성됩니다.

건강한 양심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게 하는 길, 즉 자신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꾸준히,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양심이 과연 건강한 양심인지 잘 살펴보고, 이런 양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기억한다면...

성 요한 카시아누스(360-435)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하나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낙원에 가게 된 것을 기억한다면(루가 23,39-43), 그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훌륭하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두 번이나 중대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회개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다윗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사무엘하 12,13)

다시금 인간의 소명과 구원의 시작에 대해 생각할 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이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말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선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

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묵시록 7,10) 따라서 우리는 완전이라는 목표, 곧, 구원이,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나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악습에 비할 만한 장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의로움의 가파른 정상에 다다르려거나 우리가 얽매인 채로 쓰고 있는 육체를 억제하고 다스리려는 우리 의지의 노력이 소용이 없을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의 악습에 대한 승리자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의 결과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약한 의지와 짧은 삶의 노고에도 수없이 많은 관대하심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영광을 엄청나게 베풀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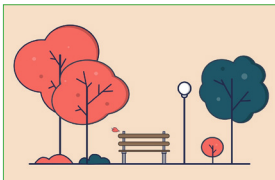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29일(목)에 맞는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 바울로 사도의 중보로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님과 모든 신자가 영적 신앙생활에 정진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 6월 29일(목)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사도
  - \* 6월 30일(금)  
12 사도 연관 축일
  - \* 7월 1일(토)  
성 코즈마스와 성 다미아노스  
자선치료자
-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소식

####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본 사목 방문

지난 16~18일, 일본의 엑사르호스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께서 일본 사목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기간에 오키나와와 도쿄에서 성찬예배, 설교, 신앙강좌, 고백성사, 신자들과의 개인적인 만남, 사랑의 오찬 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세례신자 및 예비신자들은 대주교님을 환영하며, 일본에 더 자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 서울 성당 세례 성사

지난 주일(18일), 7명의 슬라브 예비신자가 로마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 김 펠릭스, 코리나 엘라, 남 스타니스라브,  
남 마리아, 티모페에바 안나, 샤이훗지노바 예바,  
스트로예프 레프

## 두 가지 영적인 병

성인의 가르침

시리아의 이사악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주로 두 가지 영적인 병을 앓습니다. 하나는 나약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악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며, 혹시 하느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나친 자신감이나 위험에 대한 경시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나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은 반드시 교만이 뒤따르지만 참된 믿음은 겸손이 뒤따릅니다.”

